

하반기 수출입 전망

금년 상반기 수출실적 점검에서, 수출은 △23% 내외, 수입은 △34% 내외로 감소하여 무역흑자는 190억불 내외가 예상된다고 하반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밝혔다.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 20% 대의 감소율을 기록했지만,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에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08년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는 (8위)벨기에 (9위)러시아 (10위) 캐나다 (11위) 영국 (12위) 한국이다.

한국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가능

우리 수출은 '09.3월 이후 月 280억불대로 회복한

반면, 영국은 270억불, 캐나다는 260억불에서 정체되어, 금년內 10위권 진입이 가능하고 네덜란드, 벨기에는 중계무역의 비중이 높아, 自國산업 수출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7위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라 밝힌 것이다.

한편, 조사결과 4월부터 수출물량이 이미 전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감소는 수출단가하락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수출물량지수는 ('08 평균) 133.0 → ('09.1) 98.5 → ('09.2) 115.11 → ('09.3) 130.6 → ('09.4) 136.6 이고, 수출단가지수는 ('08 평균) 108.4 → ('09.1) 86.6 → ('09.2) 84.9 → ('09.3) 84.4 → ('09.4)

〈 '09년 1분기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달러기준, 억불, %) 〉

구분 (순위)	독일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프랑스 (5위)	네덜란드 (6위)	이태리 (7위)	벨기에 (8위)	영국 (9위)	캐나다 (10위)	한국 (11위)	홍콩 (12위)	러시아 (13위)
수출액	2,595	2,487	2,456	1,193	1,117	978	898	857	801	777	747	652	579
증감율	-31.6	-21.7	-19.7	-40.6	-31.8	-30.3	-33.1	-30.1	-33.3	-35.1	-24.9	-21.5	-47.4

86.6이다.

하반기는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08년 하반기) 수출 2,081억불(7.4%), 수입 2,144억불(14.9%), 무역적자 △63억불이다. 7월에는 전년 수출입이 급증했던 기저효과로 인하여 수출입감소율이 크게 확대되나, 8월 이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08년 수출증가율(%)은 (7)35.6, (8~10)17.3, 수입증가율(%)은 (7)47.0, (8~10)29.5이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크게 개선

특히, 11~12월은 '08.11월 이후 수출입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회복세로 수출·수입 모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08년 수출증가율(%)은: (11~12)△18.7, 수입증가율(%)은 (11~12)△18.3이다.

한편, 민간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 및 수출기업 대표들도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박(28.6%↑)은 2년치 이상의 수주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수출호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이다. 액정디바이스(45.8%↑)는 中 경기부양책, 美 디지털방송 전환('09.6월) 등으로 수요회복과 동시에 수출단가가 상승해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액정디바이스(45.8%↑), 무선통신기기(13.3%↑), 반도체(14.5%↑)

무선통신기기(13.3%↑), 반도체(14.5%↑)는 세계 수요 부진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기대되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4.3%↑), 가전(6.7%↑)은 미국, 중국 등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수출감소세가 둔화되고, 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할 전망이다.

석유화학(△7.5%↓)은 中 경기부양책으로 감소폭이 크게 개선되나, 중국, 중동 등의 자체공급 증가로 수출상승이 제한적이다. 석유화학 수출증가율(%)은 (상반기)△26.2 → (하반기)△7.5(연간 △17.3)이다. 철강(△25.3%↓), 일반기계(△33.1%↓)는 세계수요 급감과 설비투자 감소로 수출회복이 지연되고 감소

〈 품목별(하반기 증가) 수출증가율 추이(단위 : %) 〉

구분	선박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	섬유
상반기 ^a	22.8	6.7	△11.8	△32.5	△26.9	△13.2
하반기 ^a	28.6	45.8	13.3	14.5	6.7	4.3
연간 ^a	26.1	26.1	0.8	△10.6	△11.8	△4.6

율은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제품 수출증가율(%)은 (상반기)△29.6 → (하반기)△25.3(연간 △27.3)이고, 일반기계 수출증가율(%)은 (상반기)△38.0 → (하반기)△33.1(연간 △35.7)이다.

자동차(△32.0%↓), 자동차부품(△28.3↓)은 북미, 미국 등의 수요급감, New GM 출범까지의 수출차질, 쌍용차 구조조정 등으로 회복이 지연된다. 자동차 수출증가율(%)은 (상반기)△45.2 → (하반기)△32.0(연간 △39.2)이고, 자동차 부품 수출증가율(%)은 (상반기)△39.0 → (하반기)△28.0(연간 △34.1)이다. 석유제품(△44.7%↓)은 최근 유가상승으로 감소율은 개선되나, 전년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의 유가로 큰 폭의 감소율이 유지될 것이다. 석유제품 수출증가율(%)은 (상반기)△53.4 → (하반기)△44.7(연간 △48.9)이다.

수출기업 금융애로 적극 해소

지식경제부는 하반기 수출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한도확대 등 환위험관리 강화, 수출보험·보증 지속 확대 등 수출기업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수출보험·보증 수요급증으로 추가 확대 추진('09.상반기 약 90조원 소진 전망)할 것이다.

수출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에 지원하기 위해 추가 확보된 추경예산(237억원)을 하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 해외마케팅 지원이 170억원, 국제전문전이 42억원, 지사화인턴사업이 25억원이다.

정부조달·플랜트 등 틈새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미국, EU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진출전략을 수

립·추진하고, 무역인력 양성, 수출입 물류 개선, 전자무역 활성화 등 무역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 무역거래기반 조성 및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수립을 위해 제4회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를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다.

무역인프라 확충

KOTRA는 하반기에 수출주문 발주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외시장별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선제적·공격적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신규 해외바이어 유치, (중국) 공동물류센터 확대(현행 3개 → 6개로 확대), 시안 KBC 신설('09.8월), (일본) 대일역조 개선을 위한 부품시장 공략, (미국)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 사업 확대, 조달시장 진출 지원, (EU) 동유럽 공공프로젝트 참여지원(총 15개 200억불 상당), 터키원전수주 지원, (중동) 요르단 원전수주 프로젝트 지원, 미수교국인 시리아 다마스쿠스 KBC 신설 등이다.

수출보험공사는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지원을 위한 환변동보험 추가 개편,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지원 확대, 녹색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변동보험 한도상향(현행 1천만불 → 변경 2천만불) 및 범위제한 신상품 도입,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지원기업 확대 : 7,500개사(6.22일) → 10,000개사(연말), 선적전보증료 할인(20%) 및 한도우대(2배), 해외사업금융보험 할증률 적용배제 등이다.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업종별 단체 및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각기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면한 애로사항으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환변동보험 조기 정상화, 한·미 FTA 조기비준 등을 요청했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린카, 신소재, IT/SW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자금 확충과 신기술인증제품 우선구매 등을 건의했다.

이윤호 장관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조기에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선제적인 수출보험·보증 확충,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등 상반기의 수출총력지원체

제를 하반기에도 이어나가고, 경제위기이후를 대비하여 무역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해야

또한, 우리 수출기업도 과감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세계경제회복에 대비하여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에 나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거나, 「제1회 수출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및 수출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업종별 동향점검 결과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하반기 수출입 전망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품 목	'08년	'09년			
		상반기p	하반기e	연간e	하반기 수출여건
액정디바이스	9.5	6.7	45.8	26.1	· 중국 내수부양책, 미국의 디지털방송전환(6월) 등으로 수요회복 및 단가상승
무선통신기기	17.3	△11.8	13.3	0.8	· 경쟁업체 부진 및 공격적 시장공략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상승 및 수출회복세 확대 전망
반도체	△16.0	△32.5	14.5	△10.6	· 하반기 공급과잉이 해소되나, 수요부진 지속으로 수출상승세는 제한적
가전	△4.0	△26.9	6.7	△11.8	·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인해 수출감소세가 둔화되고 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 전망
일반기계	21.2	△38.0	△33.1	△35.7	· 미·EU·중·일 등 주요 시장의 기계수주 감소로 3~6개월내 상승세 반전은 어려울 전망
자동차	△6.0	△45.2	△32.0	△39.2	· 북미·유럽 등 주요시장 수요부진, NEW GM 출범까지의 수출차질,쌍용 구조조정 등이 회복 지연